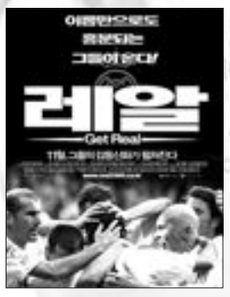
축구 영화 '열풍'

대학생 한호연(28)씨는 최근 집 인근 DVD 대여점에서 주성치 감독·주연의 홍콩 영화 '소림축구'(少 林 足 球 · Shaolin Soccer)를 빌려봤다.



월드컵 영향 '소림축구' '레알' 등 DVD 대여·인터넷 관람 줄이어

한씨는 "이미 세번을 봤지만 독일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 대표팀이 영화에서처럼 선전했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빌려왔다"고 말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구를 소재로 한 영화가 뜨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지난해 11월 개봉한 '레알'(Real).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 디비전(Primera Division)의 명문 팀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등장하기 때문. 영국 국가대표인 데이비드 베컴, 프랑스의 '아트사커'를 지휘하는 지네딘 지단, 그리고 호나우두(브라질)·라울(스페인)·카시야스(〃) 등 이번 월드컵에서 뛰는 유명 선수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가난한 라틴계 소년이 역경을 딛고 영국 축구 명문 구단의 선수로 성공하는 과정을 담은 '대니 캐넌' 감독의 영화 '골!'(Goal!·2005), 방성웅 감독의 '교도소 월드컵' (Prison World Cup, 2000)도 큰 인기다. 이외 1966년 영국 월드컵 8강 진출신화를 이룩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북한 축구대표팀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영화 '천리마축구단'(The Game of Their Lives·2001)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 영화 사이트에도 축구 관련 영화를 찾는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5월 중순부터 축구관련 영화를 서비스 중인 피디박스 박스미디어(www.pdbox.co.kr/boxmedia)의 경우 최근 2주 동안 50여명이 한 편당 2천원의 감상료를 내고 '레알'(Real)을 관람했다. '레알'은 최근 VOD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축구국가대표팀 공식후원사인 KT(대표 남중수)가 '홈엔'(www.homen.co.kr) 서비스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무료 제공 중인 '레알' '슈팅라이크 베컴'(Bend It Like Beckham·2002) '소림 축구' 도 찾는 네티즌이 많다.

호남대 다매체영상학과 복환모(48) 교수는 "2002년 월드컵 때도 축구관련 영화들이 인기를 끌었다"면서 "관심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활 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게임대회 성황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06 광주게임대회'(The Playing Gwangju Game 2006)가 전국 88개 팀 176명의 게이머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최욱명(20·대전시 서구 삼천동)씨가 준프로 자격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는 스타크래프트 종목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종목별 우승자는 ▲스페셜포스 : 언클라우드킹 팀 ▲프리스타일 : The sense ▲테일즈러너 : 안빈 씨 등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후보 홍보 문자메시지·e메일 짜증

광주 민원 하루 10~20건

5·31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자 홍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e메일 등이 폭증하고 있다.

28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발송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e메일 등이 무차별적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민원이 하루 평균 10~20건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접수된 민원들은 '후보자들이 어떻게 휴대전화 번호나 e메일을 알 수 있느냐'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광주시 서구 김모(42)씨는 "모 정당 기초의원 후보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계속 문자메시지를 넣거나 전화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차례 해당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문자메시지가 반복되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나 e메일 대량 발송하는 자동송신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수신자 거부 조항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후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e메일 전송 때 '선거 홍보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수신거부를 할 경우 요금은 후보자 측에서 부담(법 82조 5)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장애인 투표 어떻게 하라고…

광주 투표소 14곳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

장애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내 328개 투표소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투표소가 14곳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지하 1층 5곳, 2층 8곳, 3층 1곳 등이다.

투표소가 1층에 있지만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계단도 높아 투표 당일 임시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23개소였다. 또 경사로 없이 계단만 설치돼 있는 곳이 71곳, 출입문 폭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80㎝)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기준(기울기 1/12~1/8)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소는 73곳(23.8%)에 달했다.

출입문 점자 유도블럭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258군데였으며, 설치한 곳은 70곳에 불과했다.

이외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곳도 196군데나 됐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5·3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투표 도우미로 등록한 금호타이어 연구소 PC개발팀.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애인 투표 걱정마세요"

금호타이어 PC개발팀 도우미로 나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호타이어 연구소 PC(Passenger Car·승용차)개발팀 직원들 20여명이 장애인들의 투표 도우미로 나선다.

이 '따뜻한' 아이디어의 출발은 자칭 '봉사활동 추진담당'인 김철 선임연구원(39). 광주시선관위가 주관한 장애인 투표 시연회 관련 기사를 신문에서 읽고 동료들에게 제안한 것이다. PC 개발팀원들은 선거일 당일 광산구 '보람의 집' 장애인 30~40명을 자가용으로 투표장까지 안내해 투표를 도운 뒤, 시설까지 다시 데려다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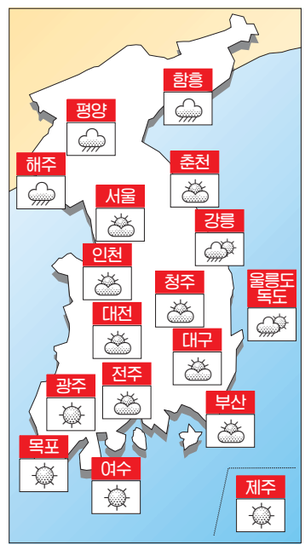
한편 '광주장애인총연합회'도 50명의 자원봉사자를 선관위에 파견하며, 학생 1천여명도 봉사활동을 자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맑은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다.

5월 29일 (음 5월 3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13~24℃
목 포	구름 조금	14~22℃
여 수	구름 조금	14~21℃
완 도	구름 조금	13~22℃
구 례	구름 조금	12~24℃
해 남	구름 조금	12~23℃
장 흥	구름 조금	12~24℃
고 흥	구름 조금	13~23℃
순 천	구름 조금	11~25℃
영 광	구름 조금	13~22℃
진 도	구름 조금	12~23℃
전 주	구름 많음	13~24℃
남 원	구름 많음	12~25℃
정 읍	구름 많음	13~24℃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03:37 15:21 썰물 08:48 20:38
여수 밀물 10:06 22:50 썰물 04:15 16:10

▲해뜸 05:21 ▲해짐 19:39 ▲달뜸 06:31 ▲달짐 22:0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화)	31(수)	6/1(목)	2(금)	3(토)	4(일)
날 씨						
최저/최고	14/27	16/29	16/27	18/22	18/26	18/25

청년층 해외구직 70% 급증
실제 취업은 100명중 5명뿐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에서 직장을 구하는 청년층이 크게 늘고 있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1~4월 해외 취업을 희망한 구직 신청자는 8천320명으로 지난해 동기의 7천159명에 비해 16.2%(1천161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청년층이 6천37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천761명보다 69.5%(2천613명)나 증가했다.

청년층 해외 구직자가 급증하는 것은 ▲고학력화 추세 속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15~29세의 청년실업률이 8.0%로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구직 신청자의 희망 직종은 사무서비스가 6천5명(72.2%)으로 가장 많고 ▲정보기술(IT) 660명 ▲기계·금속 609명 ▲전기·전자 199명 ▲건설·토목 197명 ▲의료 156명 등 순이었다.

하지만 신청자들의 준비 부족, 희망직종과 일자리가 있는 직종간 불일치 등으로 해외 구직 신청자 8천320명 중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403명으로 성공률이 4.8%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일본(191명)과 중국(115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랍에미리트(43명), 미국(18명), 호주(12명) 등이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여자친구 손님위장 고의 교통사고

자해공갈 24명 추가검거

조직폭력배 자해공갈단을 수사〈본보 5월12일자〉하고 있는 광주 북부경찰은 28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2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공모(22)씨 등 조직폭력배 14명과 여자친구 10명 등 24명을 추가로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로 여자 친구 3~4명을 손님으로 가장해 영업용 택시에 태우고 이를 뒤따라 간 뒤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공씨 등은 또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안심시킨 뒤, 일행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돈을 뜯어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